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연구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판처> 편집지: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43)470-3116 ●TEL: (0343)470-3155

법공양 페이지

집에서 혼자 공부해도 되지요

문 저는 인터넷을 통해 처음 큰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방황에 밝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주인공에 관하여 달라진 것은 주변 사람들 거의 모두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었고 저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치 궁금하게 있어 또다시 컴퓨터를 통해 글을 올립니다. 규칙적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올바르게 주인공을 관하고 있는지 어찌지 제가 제대로 공부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휴일에도 근무할때가 많고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다보니 단지 한마음요전과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큰스님의 높은 법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마음으로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저의 이기적인 상상력인지 아니면 주인공의 큰마음인지 궁금합니다.

답 공부하면서 그런 변화를 생겼다니 참 기쁘네요. 그런데 공부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공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도리의 진리를 파악하고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주인공 찾으라는데 굳이 절에 가

려고 생각은 하면서도 행동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런 마음으로 질문 드리오니 우매한 제자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은 본래부터 여여하다 했는데, 왜 우리 중생들은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윤회의 고를 벗어나지 못하는지요.

답 인생은 고(苦)가 아닙니다. 생사가 있다고 하나 생사를 여의는 불생 불멸의 열반이 있으니 고가 아닌 것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고 하나 만나고 헤어짐의 당체가 또한 텅 비어 고요하니 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윤회와 팔자과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그릇을 벗어나야 한다고 항상 말해오고 있습니다. 내 그릇이란 나를 고집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생각, 나의 명예,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나를 단단한 통속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싸워나가는 것

'나' 고집하는 생각 놓아야 참나 드러나

15면에서 계속

하셨답니다. 정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과거에 여자친구 부모님 두 분이 결혼하실 때 두 분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다고 바로 그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인 끝에 지금 제게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첫째,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일도 그냥 남들이 다 그러고들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안됩니다. 내가 그 마음을 제대로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만 상대를 대하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대화가 없고 하다보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바쁜 시대에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생기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나는 고등동물이라는 사람으로서 바른 생각과 뜻을 지니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두뇌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잠재해 있는 의식쪽을 음미해보지 않고, 생각해 볼 여유도 두지 않고 현재에 보고 들은 그 의식으로만 살면서 거기에 급급하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자기 소견으로 그대로 결정을 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안하고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소견으로 살지 말고 지견(智見)으로 살아야 진정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지견으로 살지 않으니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으려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를 위한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자리와 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되면 나도 편안할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하세요. 진짜로 상대방을 내 속과 같이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에다 돌려 놓으세요.

불교를 모른다고 하니 더욱더 자기 근본 마음자리에 믿고 믿는 공부해 모르겠기에 주인공 자리를 그냥 '마음자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단순한 한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그 표현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게 하고 먹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는 내 근본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나무뿌리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뿌리도 인해 꽃도 피고 잎사귀도 열리고 나뭇가지도 자라죠. 그거와 같이 인간도, 아니 생명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자기 근본 뿌리도 인해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0%의 보이는 세상은 있는 게 아니라 50% 안 보이는 무의 세계도 있습니다.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100% 결합이 돼서 돌이켜 보면 합일된다면 우리는 정말 진짜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어 자유롭게 활보할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 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오히려 내가 뛰어나면서 안달복달 하는 것보다 배급 천금 좋은 결과의 씨를 거둘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조화 못 이뤄

문 스님 말씀을 4년 전쯤 처음 책으로 접한 후 불교에 귀의하게 된 젊은이입니다. 선원에 나가 공부를 시작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중도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늘 주인공 공부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공부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화제를 삼는 것들에 대해서도 별달리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며 추구하는 것들에도 별달리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만나기가 귀찮아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주인공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인지 찾는 마음과 응대하는 마음이 서로 조화를 못 이루는 것 같

습니다. 원만한 행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의 한 말씀 구합니다.

답 마음의 인도를 쳐주세요. 날마다 말입니다. 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 나가는데...'라는 상을 세우지 않고 모든 걸 주인공에 맡겨 놓고 산다면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시할 것도, 내가 사는 모습이 고귀할 것도 따르지 않겠지요. 모두가 나를 가르치는 스승 아닌 게 없고 모두가 나의 주인인 근본의 나뭇잎 뿐이니까요. 삼계에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라고 했습니다. 늘 수박 애걸 합니다만 수박 씨는 수박 안에 들어 있으니 들어오고 나가는 일체 생활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온갖 행을 다 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앞 뒤 없는 대피처럼 안과 밖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참나 돌아갈 때, 꼬집어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이니, 앞 뒤, 안과 밖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참 좌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과 밖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 되겠지요.

집에 있으나, 변소에 가나, 절에 오나 가나, 법우님이 있는 곳마다 부처님은 계시니까요. 법우님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법우님이 없다면 모두가 무효지요. 그러나 법우님을 끌고 다니는 그 주인자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응도에 따라 다치는 대로 거기에 맡겨 놓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거들 얘기하지만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입 떨어지고, 말 떨어지고, 몸 떨어지면 뒤남는 게 있었습니까? 이 공부는 가난하다거나 못 배웠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욕심 장애보다 정진 장애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정진 장애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자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계시구.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대견하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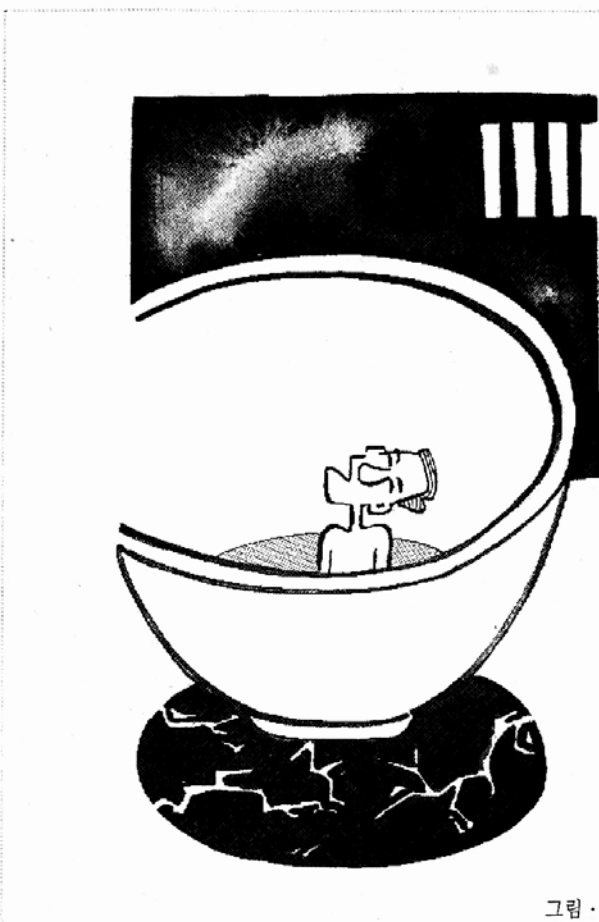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기 실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 자체가 바로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안다면 그 용탈을 필요로 대로 아주 멋지게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가정에서나 두엇이든 그렇습니다. 어떤 걸 해냈어도 내가 이끌 다 했다. 내가 해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놓

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놓지 못했으니 어느 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완전히 주인공 자리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문득문득 아직도 답답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면 또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공 자리에 완전히 놓아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게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스님께 간절히 바라옵니

자기 소견 아닌 智見으로 살아야 진정한 삶 無의세계 · 有의세계 100% 결합돼야 자유인

성공한 인생 살고 싶어요

문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역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남들이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고 성공해서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스님께서서는 그런 생각조차 버리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주 생각하고 지향해야 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그 생각조차 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남다른 목표를 생각하며 집중해야 하나요? 잠재의식의 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후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루어진다고요. 뭐가 옳은 걸까요. 진심으로 성공을 바란다면요. 아니면 스님, 이 모든 저의 생각이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는 허망한 건가요? 그래도 저는 성공하고 싶네요.

답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력을 용도에 따라서 만 가지로 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 그릇대로 쓸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정집에서는 전기를 얼마 쓰고, 또 공장에서는 모터를 돌려야 되니까 얼마를 쓰고, 용량을 아주 자유스럽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쓸 줄을 모르든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은 무명때문에, 이 색(色)을 보고 너무도 취하는 겁니다. 사랑, 성취, 욕심, 착, 이런 걸로 인해 하나부터 열까지 꼬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알 수가 있나?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그것을 포함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볼까요. "어떻게 놓습니까? 아니, 사람이 사는데 놓고 어떻게 살니까? 사랑도 할 수 없고 돈도 가질 수 없고, 다 버리게 되면 될 가지고 살니까?" 이러거든요. 누가 사랑을 하지 말았나, 돈을 갖지 말았나, 다만 사람이 누구냐가 더 욕심이 자

고 또 단 거를 합니다. 이 용량의 기계를 썼으면 그 스위치는 자동적으로 꺼야 합니다. 꺼집니다. 쉬니까! 단 일을 하려면 그거를 또 틀립니다. 안방에서 불을 켜고 쓰다가 거기 사람이 있지 않으면 불을 꺼고서 또 켜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도 그러는지 난 모르겠습디다. 하나 하고 나면 돌아서서는 단 거하고, 그것은 놓고 발췌 또 단 거 하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놓고 가야 하나? 그 용도에 따라서 아가 쓸만큼은 쓴다고 했는데 거기는 얼마든지 내 그릇대로의 용량을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자기의 살림대로, 차원대로, 생활 수준대로 쓸만큼 쓰면 큰 대로 작은 작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지금 쓸이기는 겁니다. 하여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기가 성공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인공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일체를 모두 놓는다는 생각없이 그냥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주인공에 맡겨놓고 몸은 부지런히 뛰여보세. 그것을 할 수 있어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걸리지 않고 진정 자재로이 사방이 탁 터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무언가가 치밀어올라...

문 오늘은 촛불제 회향합니다. 이번 촛불제는 작년보다 마음이 훨씬 달라서 스님께 편지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몸이 아파서 몇번씩 입원을 되풀이하고 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이러다

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점점 놓고 두렵게 쌓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벽이 높아지고 두터워질수록 내 마음은 가난해지는 것인 즉 그런 것들은 남을 막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무서운 감옥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감옥이아말로 참으로 무서운 감옥으로서,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재판관의 선처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옥에 갇혀서도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땅은 자유인이라고 활보하는 사람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자기에 게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집하는 생각을 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런 벽을 허무는 것이요, 가난한 내 마음을 봄바람을 불러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생각이 폭 쉬게 되면 참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참나의 세계는 불생불멸하고, 영원한 복락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복락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벽을 허물기만 하면 이미 내 안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풀이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올바르게 마음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문 큰스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는데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좀 막막한데, 제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힌트를 좀 주세요.

답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그 나이의 마음가짐은 다 똑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보는 세상은 참으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원하는 것 모두 가지고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본인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두려운 생각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학생들은, 당장 이 시간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해도 다 목살할 수 있고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힘이 생기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게 되구요.

다시 말해서 내일 죽는대도 걱정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진실하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 몸은 물론, 아무 것도 가질 게 없다는 얘기도, 가진 게 없는 반면에 어차피 죽어도 무엇이든 착이 없다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이제 정말 어른스럽게 대학이라는 새로운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니 무슨 간담다 자신을 돌아다보고 자제하며,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을 길러서 삶의 목표를 물질이나 허망한 일에서 두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발전하는 현명한 학생으로 살길 바랍니다.

나를 버린다면 두려울게 없습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 생기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야하나?"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절에 한번 왔다 가지만 해도 두절됐던 통신이 터지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법회는 왜 하며, 절에 왜 다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데 말입니다. 그건 학교라는 곳에서 다양한 부분을 학습하기 때문인 것처럼 마음 공부하는 신도들도 절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충진이 된다고 소립니다. 누가 말을 해주고 안해주고 그걸 떠나서 법당에 와서 정성을 들이고 가고, 어디가 어떻든지 하나의 원을 세워서 다닌다면은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배우고 하면서 길을 가다가 한 생각을 해도 그날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절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서, 정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길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충진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모두들 허공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주에도 한양대선원이 있으니 그곳 스님들께 말씀드리기도 하거나 또 열심히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으니 시간 나는 대로 가서 토론도 하기 바랍니다. 혼자서 공부하다보면 넓혀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알고 굳은 신심으로 열심히 정진하시 바랍니다.

질실하게 믿고 말기려면...

문 큰스님께서서는 마음공부를 하실 때 정말 애절하고, 목숨도 놓아버릴 정도로 하신 것을 책에서 보았고 법문 하실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때는 질실하게 하다가 어느새 주인공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큰스님처럼 애절하고 질실하게 주인공에 믿고 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버린다면 아무 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법이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고 아무 것도 고집할 것이 없습니다. 실사 내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꼭 하고 갈 것이 없다. 내가 무엇을 꼭 해야 하는, 내가 꼭 해야만 한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다 부질 없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 되면 죽으면 그만이고, 살면 사는 거고, 그냥 그저 길을 걸어 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 생각 '나'라는 것을 다 버린다면 몸 속에 든 악업, 선업도 다 그냥 송두리째 녹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 덩어리 하나, 그것에 착을 두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발전하는 현명한 학생으로 살길 바랍니다.

윤회의 고통 벗어나려면...

문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큰스님 가르침 감사하며 열심히 따르